

### 전북교육감 선거 막판 공방 격화

# 이남호 “6340만원 대납, 매관매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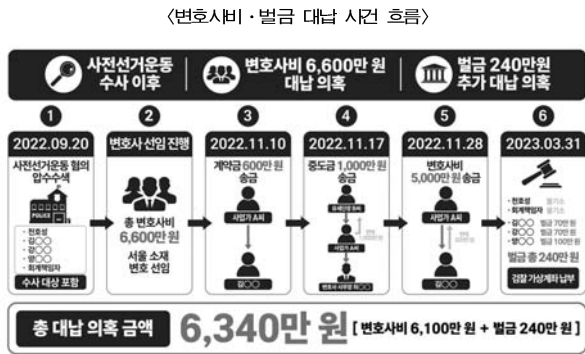
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가 27일 전북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쟁 후보 측을 둘러싼 금전 대납 및 인사 청탁 의혹을 제기하며 즉각적인 수사와 후보직 사퇴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2년 사전선거운동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비와 벌금 등 총 6,340만원이 제3자를 통해 대납됐고, 그 대가로 전북도교육청 5급 공무원 자리와 사업권이 약속됐다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사안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선거 논란을 넘어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전 뇌물, 이른바 매관매직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후보는 의혹의 핵심 구조로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특정 사업자에게 변호사비와 벌금 대납을 요청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무원이 캠프 관련 인사와 함께 제3자에게 거액의 비용 부담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향후 공직 인사와 사업권 제공이 조건처럼 제시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자회견에서는 실제 자금 흐름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도 공개했다. 이 후보 측은 2022년 11월 특정 기간 동안 수차례 걸쳐 총 6,600만원 규모의 변호사비가 관련 계좌로 송금됐고, 이 중 상당 부분을 사업가 A씨가 부담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후 일부 금액은 반환되거나 재송금되는 과정을 거치며 최종적으로 약 6,100만원 상당이 실질적으로 대납 형태로 처리됐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 후보는 해당 사건 이후 벌금 대납 요구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전선거운동 사건 관련자들에게 부당한 벌금까지 대신 납부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실제로 수백만 원 규모의 금액이 검찰청 가상계좌로 납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총 6,340만



### 기자회견 열고 자금 흐름 관련 내용 공개

#### “사실이라면 공직사회 근간 흔들 사안”

#### 후보직 즉각 사퇴·강제수사 촉구도

원 상당의 금전이 대납 구조로 흘러 갔다는 것이 이 후보 측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특정 공무원이 교육청 5급 자리와 ‘사업권’을 언급하며 금전 부담을 유도했다는 점이 핵심 의혹으로 제기됐다. 이 후보는 “이러한 조건 제시는 개인 차원의 부탁이 아니라 조직적인 권한 남용과 거래 정황으로 볼 수 있다”며 “사실이라면 공직사회의 근간을 흔들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실제 금융거래 내역과 송금 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존재한다”며 “이미 6건의 관련 금융 자료를 확보한 상태로 이를 토대로 경찰에 정식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계좌 이통 내역은 금전 거래의 실체를 보여주는 명백한 물증”이라며 “사법당국의 즉각적인 압수수색과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남호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경쟁

후보를 향해 직접적인 사퇴 요구도 이어졌다.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매관매직 의혹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단약 사실이라면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당선무효형이 불가피한 만큼 즉각 후보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전북교육은 도민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이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교육행정 전체가 심각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재선거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고려해야 하는 중대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그는 “도민 한 표는 전북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엄청난 선택”이라며 “부패 의혹과 중대 범죄 혐의 수사 대상에 오른 후보를 그대로 선택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 천호성 “금전거래 의혹 허위사실”

“근거없는 주장, 법적 대응할 것  
유권자 혼란 초래하는 행위 멈춰야”

천 후보 향한 공개 지지 선언도 이어져  
도내 퇴직교원 1145명, 천 후보 지지

천호성·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자 간 공방이 선거 막판까지 이어지며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금전 거래 및 부당 청탁 의혹을 제기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를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이남호 후보 측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2022년 선거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및 벌금 대납 의혹과 함께, 특정 공무원과 사업자 간의 금전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다른 한쪽에서는 이를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천 후보 측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포함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 후보 측은 이어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포함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 후보 측은 이어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포함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성된 전형적인 흡집내기”라고 규정했다. 천 후보 측은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후보자와 캠프는 관련된 금전 거래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문제로 제기된 시점과 관련해 “해당 내용은 교육감 선거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시점의 시책 대화와 개별적 관계를 무리하게 선거와 연결시키는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가진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캠프와 무관한 인물 간의 개인적 거래를 후보와 연결 짓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 행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천 후보 측은 이어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포함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 후보 측은 이어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포함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 후보 측은 이어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포함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북지역 퇴직 교직원 1,145명이 전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 후보 지지를 공식화했다.

### 제4회 전북직업교육박람회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직업교육의 비전과 교육과정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제4회 전북직업교육박람회를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도내 중학생과 학부모에게 직업계고의 학과별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생과 학부모 등 4,0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개막식을 비롯해 교육과정 홍보관, 지역특성화고 홍보관, 직업교육정책 홍보관, 3D체험관, 신기술 체험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설명회 등이 운영된다.

특히 개막식에서는 원광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KTEC), (주)엔에프에이치,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협회,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캠프종합기술원 등과 함께 진북형 채용연계 직무교육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직업계고 우수 인재 양성과 함께 산업 수요 기반 교육 및 채용 연계를 강화해, 학생들이 졸업 후 도내 기업에 취업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육과정 홍보관에서는 도내 31개 직업계고의 입학 정보와 교육활동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각 학교 진학 상담 부스를 통해 중학생들에게 학과 선택과 진로 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설명회를 통해 중학교 교사와 학부모에게 직업계고 교육 과정과 진로 정보를 상세히 안내한다. 이 밖에도 가상현실(VR) 직업 탐색, 가상 커리어이전 직업 체험 중장비·드론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인다. /오상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7일 브리브광주 바이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4회 S2B 청렴계약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기관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운영 성과 인정

전북교육청, S2B 청렴계약 우수기관 선정... 3년 연속 수상  
교육지원청·학교 성과도 이어져... 익산교육지원청 등 수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S2B)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S2B 청렴계약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북교육청은 27일 브리브광주 바이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4회 S2B 청렴계약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기관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S2B 이용 실적과 전년 대비 증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정하고 청렴한 계약문화 조성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전북교육청은 2024년 기관 공로상,

북교육장터' 코너를 개설해 지역 생산품 우선구매를 확대하고, 계약업무 운영 개선과 현장 지원 강화에도 지속적으로 힘써왔다.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성과도 이어졌다. 익산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 부문에서 전북최화학교는 학교 부문에서 각각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이리공업고등학교도 청렴계약 우수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수상은 분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의 계약업무 담당자들이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을 통해 신뢰받는 전북교육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 학생맞춤통합지원 민관협의체 첫 운영

전북교육청, 위기학생 통합 지원 강화 위해 협력체계 가동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위기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7일 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위기학생의 조기 발견과 통합적 지원을 위해 ‘전북학생맞춤통합지원 민관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내 다양한 협력기관과 머리를 맞대는 첫 자리다.

민관협의체에는 도교육청과 전북특별자치도청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이동보조전문기관, 청 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센터, 사회복지관협회, 국제이비서 전북지부,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역본부, 월드비전 전북사업본부, 초록우산 전북지역본부, 그리고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올해 처음 운영된 이번 회의에서는 상담·치료·복지·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기관 간 연계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각 기관의 학생 지원 내용과 협력 사항을 공유하고, 위기학생 지원 과정에서 필요한 연계 및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앞으로 참여 기관들은 학생의 학습, 경제,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이동학대 등 학습을 저해하는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 상호 협력하고, 학생 중심의 통합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어려움을 학교만의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 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광역 단위 민관협의체 운영을 계기로 14개 교육지원청에서도 지역 여건에 맞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 유학생 창업 지원 ‘정주형 글로벌 모델’ 속도

전북대 창업지원단, 'Global Inbound Start-up Idea Camp' 개최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글로벌 대학30 사업을 통한 유학생 유치 확대 및 지역 정착과 창업을 연결하는 ‘정주형 글로벌 모델’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대 창업지원단(단장 국경수)은 지난 28일 전주 한옥마을에서 ‘Global Inbound Start-up Idea Camp’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전북특별자치도의 2026년 인바운드 창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창업 특화 프로그램이다. 행사에는 전북대, 호원대, 군산대 등 도내 3개 대학 유학생 48명이 참여해 글로벌창업이민센터와 연계한 창업교육과 함께 창업 아이디어 발굴, 비즈니스 모델 기초 교육, 1:1 맞춤형 멘토링을 받았다. 프로그램은 창업이론 교육부터 멘토링, 아이디어 경진대회로 이어지는 단계형 구조로 설계됐다. /김재호 기자